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4.(화) 15:00 (2026. 11. 25.(수) 조간)

근로복지공단,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우수기관 선정...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

- 여성관리자 확대, 제도·문화 개선 등 실천과제 이행
- 직원 참여와 현장 중심의 개선으로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조성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24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유공 포상'에서 이행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평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여성인재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직원 참여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공단은 2024년부터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에 참여해 인사·권한, 직무배치, 일·생활 균형 등 5개 분야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개선 과제를 모두 이행했다.

먼저 여성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부 핵심부서에 여성관리자 배치를 확대하고, 여성인재를 육성하며 승진 기회를 꾸준히 넓혀왔다. 그 결과 2026년 3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44.1%로 정부 목표를 상회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단계별 지원제도와 직원별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했다.

특히 직원들의 목소리를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청년 직원으로 구성된 '2030 성평등 자문단'을 운영해 성평등 관점에서 제도를 점검하고, 예방활동 계획 수립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본부, 지사, 공단병원의 성평등 인지감수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직원 공모로 발굴한 성평등 저해요인 개선사례도 공유하는 등 일상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해 왔다.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여성 인재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직원들과 함께 일터의 문화를 바꿔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존중받으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재경영국 인재기획부	책임자	부 장	홍창표 (052-704-7051)
		담당자	팀 장	권오혁 (052-704-7636)